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현숙¹ · 구현영²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부교수²

Effects of the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Role on Sense of Competence in 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Parents of Adolescents

Park, Hyun Sook¹ · Koo, Hyun Young²

¹Professor,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role on sense of competence in 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parents of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design.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parents of adolescents, 1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 in the control group. Data were analyzed using Fisher's exact test and Mann-Whitney U test with the SPSS/WIN 14.0 program. **Results:** Scores for sense of competence in parenting of participants in the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rol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nts in the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role had higher parent-child communication,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nts in the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role had higher parental role satisfaction,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in parenting role was effective in increas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for parents of adolescents. Therefore, this approach is recommended as a strategy for parents of adolescents.

Key Words: Parents, Mental competence, Communication, Personal satisfac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Ju, 2007; Kim & Moon, 2006), 부모의 역할

수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Lee & Han, 2007).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호혜적 관계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성격 형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Hyun, 2000),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Oh, 2007). 따라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과중한 역할 수행 부담이 감소되고,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때, 부모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어: 부모, 역량, 의사소통, 만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oo, Hyun You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eo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9, Fax: 82-53-650-4392, E-mail: hykoo@cu.ac.kr

- 본 연구는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KRF-2007-313-E0057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313-E00579).

투고일 2010년 9월 6일 / 수정일 1차: 2010년 11월 3일, 2차: 2010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8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se-Lansdale & Pittman, 2002).

최근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Park, 2005) 되고 있다. 부모효능감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부모효능감은 부모역할에서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므로(Dorsey, Klein, & Forehand, 1999),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도록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수행을 돕고(Lee, 2003), 나아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Dorsey et al., 1999).

부모-자녀 간 대화부족이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며, 부모역할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Park & Kim, 2009).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과 함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므로, 부모 자녀 간 대화가 힘들고 세대 차이를 크게 느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다(Olson et al., 1982).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자녀가 사회화 교육과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부담을 줄이고(Lim & Choi, 2006),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Park & Kim, 2009),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Park & Koo, 2009).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증진될 때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Park & Kim, 2009). 부모역할만족도란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 성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Lee & Han, 2007).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가 향상될수록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자녀의 능력을 증진하며, 부모 자신도 일상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감소되고,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며, 긍정적인 가족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Guidubali & Cleminshaw, 1985). 즉, 부모역할만족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개발해야 하는 주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역량은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기술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역량이다(Spencer & Spencer, 1993).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Choi et al., 2008), 전반적인 자녀이해와 양육수행은 부모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Kim & Han, 2009) 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효능감 향상과 문제해결 및 갈등 대처에 기여하고(Ahn, 2005),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Park & Kim, 2009)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행되는 과도기의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해결 및 갈등 대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녀가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해결 및 갈등 대처 기술에 초점을 둔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는지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3. 연구가설

가설 1.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역할 핵심역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하는 일 복지관을 이용하고, 다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에 서면 동의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30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α 가 .05, 검정력 1- β 가 .70, 효과 크기가 .50일 때 1개 집단의 최소 표본 수가 13명인 것을 근거로(Borenstein, Rothstein, & Cohen, 2001), 탈락률을 고려하여 사전 조사에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을 선정하였다. 개인 사정으로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실험군 3명과 이사를 가서 사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1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조군 2명을 제외한 실험군 12명, 대조군 12명을 최종분석에 포함시켰다.

3. 연구도구

1)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 (1997)이 번안·수정한 부모효능감 척도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2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6이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Olson 등(1982)이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Min (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중 부모용 척도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Min (199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7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7이었다.

3)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Duke, Rose와 Halverson (1997)이 개발하고, Seo와 Lee (1999)가 번안·수정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1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eo와 Lee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92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90이었다.

4. 연구진행

1)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명확한 목표 수립과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여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 요구도 조사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학부모 232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및 교육 참여 횟수를 파악한 결과, 자녀와의 대화기술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높았고,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교육 요구도 높았다. 교육 방식은 강의와 토론을 가장 선호하였고, 교육 참여 횟수는 대부분(90.9%)이 3회 이하를 원했다.

(2) 전문가 간담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사를 기초로 하여, 프로

그림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는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중·고등학교 교사 2명, 간호학 교수 2명, 정신전문간호사 1명,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담회 내용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파악한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교육 참여 횟수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요청하고, 수정 및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청소년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증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및 갈등 대처 기술 향상에 두었으며, 프로그램의 회기는 학부모의 요구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여 8회기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과 지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로 하였고, 인지·행동적 접근과 문제해결 대처 전략 및 경험주의적 접근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프로그램 개발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증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및 갈등 대처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고, 도입(1회기), 청소년의 성장·발달(2회기),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및 대처(3회기), 부모-자녀 의사소통(4회기), 자녀의 자존감 강화(5회기), 문제해결 능력 향상(6회기), 부모-자녀 간 갈등 해결(7회기), 스트레스 관리 및 종결(8회기)로 구분하여,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Table 1). 구성된 프로그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7인에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발달 과정,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및 대처에 대해 교육하였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였다.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해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수정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부모-자녀 간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서 경험주의적 접근으로 Kolb (1984)의 4단계 학습 순환과정(learning cycles)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상황 사례를 제시하고, 간접 경험을 하도록 도왔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이 사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사례 상황을 해결하는 의사결정권자라면 어떤 대안을 강구했는지 성찰해보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경험하고 성찰한 사실로부터 기본 가정을 도출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 새

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에서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도입(5~10분), 주제에 대한 교육과 활동(40~50분), 질의응답 및 평가(5~10분)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은 주 1회 1~1시간 20분으로 운영하였다. 각 모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었다.

2) 소그룹 운영자 모임

프로그램 진행의 일관성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인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그룹 운영 시 일관되게 반응하기 위해 사전에 만나서 토의를 하였고, 일관된 그룹 운영을 위해 함께 평가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일 지역에 소재하는 경제적인 취약 지역에 위치한 일 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기준에 적합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명단을 확보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실험군에게 연구의 목적, 정보의 비밀유지, 참여의 자발성,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이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문지 기입 후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험군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원하는 경우 연구 종료 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첫 회기 시작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 종료 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제 3변수 개입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군과 동일한 시기에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조사는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실험 전 종속 변수의 동질성

Table 1. Outlines of Core Competency Support Program

Session	Title	Contents and strategies
1	Orientation and building trust	· Introducing program objectives and process · Conducting a pretest · Discussing general cautions and rules · Introducing team members
2	Growth and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 Understanding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 Giving lecture & discussion
3	Coping with mental health problem	·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blem in adolescents · Understanding coping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roblem in adolescents · Giving lecture & discussion · Using the role-playing technique
4	Parent-child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an effective parent-child communication · Using empathy and listening skills · Expressing thought and emotion by I-massage · Using the role-playing technique based on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5	Self-esteem enhancement	· Reclaiming a positive sense of self of child · Finding strength of child · Using cognitive-behavioral techniques for enhancing strengths of child
6	Problem solving	· Understanding problem solving ability · Using cognitive-behavioral techniques and solution-focused strategies for solving problems
7	Conflict resolution	· Understanding fundamental problem solving in a conflict situation · Using experiential learning cycle for conflict resolution
8	Stress management and program evaluation	· Introducing fundamental stress management · Sharing benefits of the program · Conducting a posttest

검정은 비모수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 가설 검정은 비모수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대상자의 실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처치 전 두 집단 간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효능감은 실험군이 50.7점, 대조군이 54.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U=51.00, p=.224$),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74.6점, 대조군은 7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U=70.00, p=.908$), 부모역할 만족도는 실험군이 68.3점, 대조군은 71.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U=60.50, p=.506$) (Table 3).

3. 가설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의 평균을 산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청소년 자녀를 둔 24명의 학부모이며, 남자가 8.3%, 여자가 91.7%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87.5%, 없는 경우가 12.5%였고, 연령이 45세 이하가 54.2%, 46세 이상이 45.8%였다. 경제적 상태를 중위로 지각한 경우가 45.8%, 하위로 지각한 경우가 54.2%였다. 가족유형은 편부모 가정이 54.2%, 양부모 가정이 45.8%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종교 유무, 연령, 경제적 상태 및 가족유형에서 통계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Two Groups

(N=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4)	Exp. (n=12)	Cont. (n=12)	p [†]
		n (%)	n (%)	n (%)	
Gender	Female	22 (91.7)	11 (91.7)	11 (91.7)	1,000
	Male	2 (8.3)	1 (8.3)	1 (8.3)	
Religion	Have	21 (87.5)	11 (91.7)	10 (83.3)	1,000
	Have not	3 (12.5)	1 (8.3)	2 (16.7)	
Age (year)	≤ 45	13 (54.2)	6 (50.0)	7 (58.3)	1,000
	≥ 46	11 (45.8)	6 (50.0)	5 (41.7)	
Economic status	Middle	11 (45.8)	3 (25.0)	8 (66.7)	.100
	Low	13 (54.2)	9 (75.0)	4 (33.3)	
Type of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13 (54.2)	9 (75.0)	4 (33.3)	.100
	Two-parent families	11 (45.8)	3 (25.0)	8 (66.7)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in Pretest

(N=24)

Variables	Exp. (n=12)	Cont. (n=12)	U	p
	M±SD	M±S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50.7±9.49	54.4±6.84	51.00	.224
Parent-child communication	74.6±12.01	74.8±10.77	70.00	.908
Parental role satisfaction	68.3±10.09	71.2±11.44	60.50	.50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부모효능감은 사전 50.67점에서 사후 56.33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54.42점에서 사후 55.1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실험군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사전 74.58점에서 사후 80.58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74.83점에서 사후 74.50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실험군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사전 68.33점에서 사후 76.58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71.17점에서 사후 70.1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설 1.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점수 차이는 실험군 5.66점, 대조군 0.75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U=34.50, p=.052),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설 2.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후 학부모의 부

모-자녀 의사소통 점수 차이는 실험군 6.00점, 대조군 -0.33점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U=33.50, p=.024),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후 학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점수 차이는 실험군 8.25점, 대조군 -1.00점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U=16.00,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학부모의 부모효능감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Table 4. Comparison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Treatment (N=24)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U	p
		M±SD	M±SD	M±S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Exp. (n=12)	50.67±9.49	56.33±6.02	5.66±8.47	34.50	.052
	Cont. (n=12)	54.42±6.84	55.17±8.94	0.75±3.55		
Parent-child communication	Exp. (n=12)	74.58±12.01	80.58±9.15	6.00±7.45	16.00	.001
	Cont. (n=12)	74.83±10.77	74.50±12.02	-0.33±5.05		
Parental role satisfaction	Exp. (n=12)	68.33±10.09	76.58±8.46	8.25±6.86	33.50	.024
	Cont. (n=12)	71.17±11.44	70.17±11.63	-1.00±6.88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제1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었던 Ahn (2005)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회기(8회기)와 각 회기의 실시 시간이 부모효능감 증진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중도 탈락으로 인한 표본수의 제한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hn (2005)의 연구에서 학부모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회기마다 3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부모효능감 증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구대상자 선정 시 통계분석의 최저표본수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상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2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Ahn (2005)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자아존중감 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학령기 어머니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던 Shin과 Won (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Ahn (2005)의 연구와 Shin과 Won (2009)의 연구에서 듣기 기술, 말하기 기술 등의 대화기술 증진을 통해 부모-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켰듯이, 본 연구에서 공감, 나-전달법과 같은 의사소통 기법, 문제해결 및 갈등해결 전략을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한 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모-자녀 간의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Kolb (1984)의 학습 순환과정을 활용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3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자신의 이해, 자녀 이해, 긍정적인 부모역할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둔 부모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부모역할만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Lee (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때 부모역할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Park과 Kim (2009)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부모만족도가 높고 (Seo & Lee, 1999),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므로(Dorsey et al., 1999), 청소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해결 및 갈등 대처 기술에 초점을 둔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만족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향상된 것은 의사소통 전략을 통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향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Park & Kim, 2009), 문제해결 및 갈등해결 능력 향상으로 인해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Kil & Yi, 1999)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 검정을 시도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을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제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다소 적으며, 한 그룹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이므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표집하지 못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결론

본 연구는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역할만족에 효과적이었다.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부모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한된 역량요인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역량요인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정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hn, H. J. (2005).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2), 85-97.
- Borenstein, M., Rothstein, H., & Cohen, J. (2001). *Power and precision: A computer program for statistical power analysis confidence interval*. Englewood, NJ: Boostat.
- Chase-Lansdale, P. L., & Pittman, L. D. (2002). Welfare reform and parenting: Reasonable expect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2*(19), 167-185.
- Choi, M. K., Shin, J. H., Gu, H. G., Park, S. Y., Han, H. A., & Choi, D. B. (2008).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knowledge level and demand of parent education for adolescents' mothe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227-242.
- Dorsey, S., Klein, K., & Forehand, R.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ke, H. D., Rose, H. A., & Halverson, C. F. (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 Kansas, MO: USA.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5).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14*(4), 293-298.
- Hyun, E. M. (2000). Adolescent runaway: The impact of family, individual factors, and cop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2), 41-55.
- Johnston, G. W.,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Ju, S. H. (2007). Parental divorce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Focusing o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107-136.
- Kil, A. J., & Yi, S. H. (1999).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Korean adolescents resident in Korea and in Americ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 239-248.
- Kim, J. H., & Moon, H. J. (2006).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4(1), 115-129.
- Kim, S. A., & Han, Y. J. (2009).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nd knowledge on child rearing on his parent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1), 55-64.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Lee, B. R., & Han, S. Y. (2007). Effects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on employed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1), 19-35.
- Lee, H. S. (2003).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among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the U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57-71.
- Lim, J. H., & Choi, Y. S. (2006). Children coping with stress: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s, parental-related stress,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chil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4), 233-246.
- Lee, Y. S. (2006). *The effect of parents care program in low-income parents' interpersonal attitude, parents role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Min, H. Y.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Oh, Y. H. (2007).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nflic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645-663.
- Olson, D. H., Ma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2).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ark, H. S., & Kim, Y. Y. (2009). The effects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parent-child relation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297-304.
- Park, H. S., & Koo, H. Y. (2009). The buffer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87-94.
- Park, Y. G. (2005). *Mother's parenting stress, coping style, and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eo, H. Y., & Lee, S. H. (1999). The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ed*, 4(2), 257-280.
- Shin, S. H., & Won, J. S. (2009). The effects of a self-esteem enhancement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4), 492-500.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